

---

# 보도자료

## (농림수산식품부)

- 제공일 : 2008. 3. 28
- 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 
동물방역팀
- 팀 장 : 김 창 섭
- 사무관 : 조 옥 현
- 전 화 : 500-2124

이 자료는 2008년 3월 2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제목 : 정운천 농식품부장관, 구제역 검역현장 점검

---

-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3월 29일(토) 오후 인천 국제 공항을 방문해 '구제역 국경검역'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다.
  - 정 장관은 중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동물검역 홍보 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한 후 공항 입국장의 신발 소독조 운영, 세관의 반입물품 검색, 검역 탐지견 운영 및 압수물품 폐기 실태 등을 점검하고 세관 근무자 불법 축산물 검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.
- 정 장관은 중국·몽골 등 인접 국가에서 구제역 발생되고 있어 언제라도 국내에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
  - 특히, 해외 여행객들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외국의 농장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육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자제해 주고,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과 질병 예찰 등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.

□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발생 가능성이 높은 3~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국경 검역조치와 국내 방역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국경검역 조치로 병원체 유입 경로별로 수입건초는 2회(선적·하역) 소독·검사 후 반입, 모든 입국자의 신발 소독 및 발생국 운항노선의 여행객에 대한 휴대 축산물 집중 검색 등 검역활동을 하고 있다.
- 국내 방역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을 '일제소독 및 예찰의 날'로 정해 공동방제단 1만5000명·예찰요원 3000명을 동원해 소독·예찰을 정례화하고 있다.
- 방역활동이 취약한 농가(431개소)·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(770개소)에 대해 특별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국 가축방역기관에 상황실 및 질병 신고 전용전화(1588-4060)을 운영중이다.

□ 참고로 구제역은 소·돼지·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간 동물·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축산 전염병이다.

-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돼 4,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고, 대만은 '96년부터 '00년까지 발생 5년간 총 41조 원, 영국은 '01년 발생으로 21조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.

[참고 1]

## 청소년 동물 검역 홍보 도우미 운영 현황

### □ 배경 및 경위

-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, 동물검역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여행객에게 동물검역 홍보효과 제고
- '05년부터 인천(영종도) 관내 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“청소년 동물 검역 홍보 도우미” 위촉·운영 운용
- '06년부터는 김해·대구·제주·광주·청주 국제 공항까지 확대

### □ 운영 상황

- 운영 시기 : 방학 및 주말
- 운영 인원 : 매회 30명수준
- 운영 실적(인천공항)

기 수	활동기간	참여 학교수	참여 학생수	비고
1	'05.7.~8.	4	297	
2	'05.12.~'06.2.	4	304	
3	'06.7.~8.	6	416	
4	'07.1.~2.	6	317	
5	'07.7.~8.	16	651	
6	'08.1.~2.	11	289	계 : 2,300명

### □ 운영 성과

- 청소년의 신선한 이미지를 활용한 동물검역 홍보효과 거양
- 학생들에게는 봉사 활동의 체험학습과 동물검역의 중요성 인식